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트로트 전설’ 심수봉 국민 프로듀서 노크

심수봉(본명 심민경)은 1973년부터 서울 소공동 이탈리아 레스토랑 ‘라 칸티나’ 등에서 노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재즈음악가 엄호미의 부탁으로 박종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 주최한 파티에 피아노 연주자로 참석하게 된다.

이때 박 전 실장 눈에 띄어 1975년 대통령 만찬에 초대됐고 여기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 심수봉의 자서전 ‘사랑밖엔 난 몰라’에 ‘눈물 젖은 두만강’ ‘황성옛터’를 들으며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실려 있을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인정받았다.

본격 데뷔곡은 1978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부른 ‘그대 그 사람’이다.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MBC ‘금주의 인기가요’와 TBC ‘가요 베스트7’의 정상에 등극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TBC와 KBS 신인 가수상-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인기 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공정동 사태’에 휘말리며 가수 인생에 타격을 받았다. 이날은 충청남도 당진과 아산을 잇는 국내 대규모 방조제의 완공식이 있던 날이었다. 기분이 좋았던 박 전 대통령이 연회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려 심수봉도 참석하게 됐다.

당시 현장에는 심수봉 외에도 모델 신재순-중앙정보부장 김재규-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이 있었다. 그런데 만찬 도중 김재규가 손 총탄에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건 이후로 심수봉은 지속적인 정부의 감시를 받았으며 햇빛을 본다는 누명을 쓰고 정신병원에서 감금돼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후로도 고난은 계속돼 TV에 출연하면 10.26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1980년 방송금지 조치를 당해 오랜 칩거 생활을 했다.

1980년 폐쇄된 몸과 마음의 치료를 위해 지인을 통해 심리학자 한기석이 만나 1년여간 동거하다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약 1년 만에 끝났다. 그 사이 아들 한승현을 낳고 이혼했다.

이후 자신이 노래하던 밤무대의 사장 박진섭을 만나 결혼해 1984년 딸 박성희를 낳고 9년간 결혼생활을 이어 갔지만 성격 차이로 또다시 이혼했다.

1993년 지금의 남편 김호경을 만나 세 번째 결혼을 했다. 당시 김호경은 MBC 라디오 ‘심수봉의 트로트 가요 앨범’의 PD였다. 심수봉은 본인의 히트곡 ‘비나리’가 당시 김 PD를 짝사랑했을 때 만난 노래라고 밝힌 바 있다.

1984년 방송 금지가 해제된 후 ‘남자는 배여자는 항구’ ‘그대와 탕고’ 등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 갔고 1987년 ‘사랑밖엔 난 몰라’가 히트하면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비나리’(1996), ‘백만송이 장미’(1997), ‘개어울’(2005), ‘나의 신부여’(2011) 등을 히트시켰으며 올해 4월에는 신곡 ‘부부행진곡’을 발매하는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심수봉은 28일 오후 9시10분 첫 방영되는 MBN ‘현역가왕’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현역가왕’은 2024년 치러질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TOP7를 뽑는



심수봉 가수

서바이벌 음악 예능이다.

최종 선발된 7인은 일본 후지테비와의 자회사 ‘넥스텝’에서 ‘불타는 트로트의 판권’을 구입해 제작 중인 ‘트롯걸 in 재팬’ TOP7과 맞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출전해 본격 한일 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국내 최정상급이라 불리는 현역 여성 트로트 가수를 대상으로 현존 최고 현역을 뽑기 위한 맞장 승부를 펼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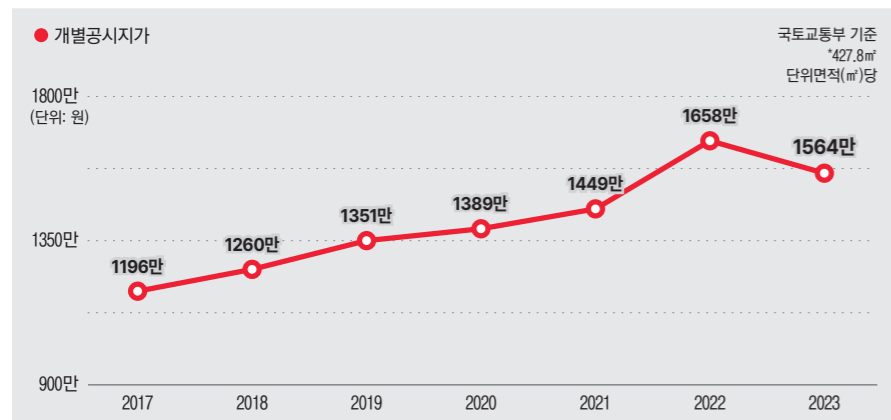
데뷔 45년차 경력을 살린 날카로운 심사평이 기대되는 가운데 심수봉의 발단이 주목된다. 심수봉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사진) 하나를 소유 중이다. 1989년

2월 역삼동의 350.2㎡(약 105.93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1990년 연면적 300.48㎡(약 90.89평)의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을 지어 사무실과 자택으로 사용했다. 이후 건물을 허물고 2007년 12월 현재의 건물을 완공했다. 같은 땅에 신축한 두 번째 건물로 지하 2층~지상 2층-옥탑 1층, 대지면적 350.2㎡(연면적 866.26㎡(약 262.04평))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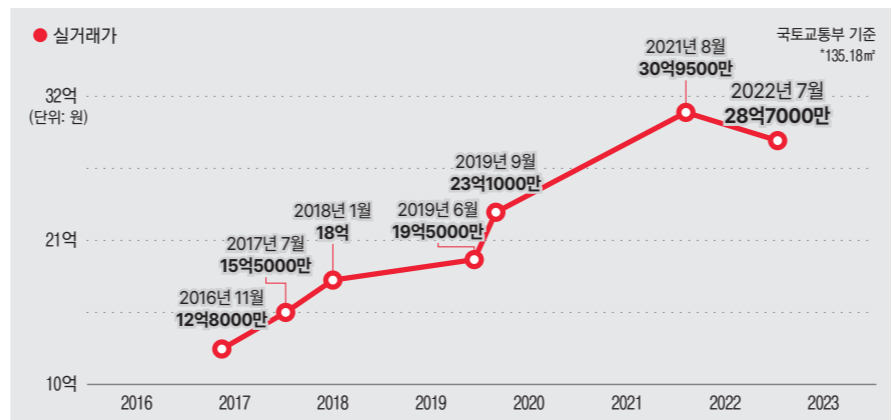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시설인 이 건물엔 교화디자인 카페 등이 입주해 있다. 2층은 심수봉 가족의 자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동원 기자 dwlee@sky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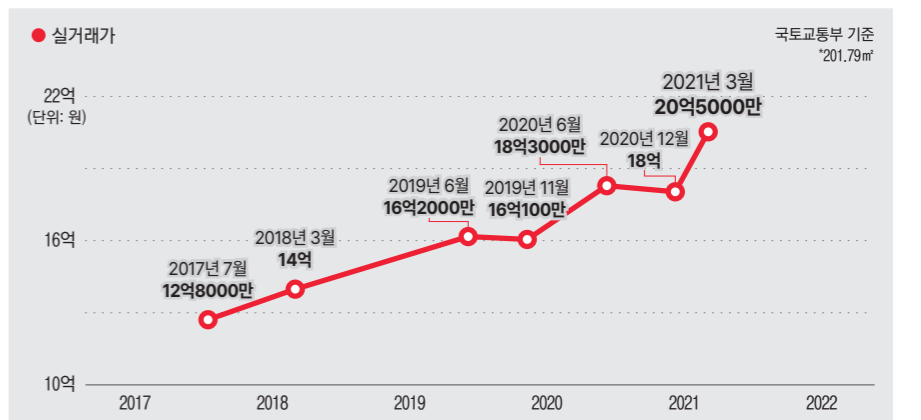
### 빌딩(서울 강남구 역삼동)



### 레미안그레이트2차(서울 강남구 역삼동)



### 역삼동롯데캐슬노블(서울 강남구 역삼동)



### 김기훈 현)씨유 대표이사

김기훈 현 씨유 대표이사는 손주는 회장과 함께 메가스터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외국어영역 영어 분야 스타강사다. 과거 메가스터디 외국어영역 영어 분야 매출의 70%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당시 연봉만 수십억 원에 달해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현재 중고등 영어 학습교재 전문 출판사 ‘씨유’를 이끌고 있다. 성균관대 독어독문학과 재학 시절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과외를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졌다. 강의에 자신감이 붙자 대학 3학년 때 작은 학원을 차려 강사 생활을 시작했고 졸업 후 본격 사교육

### 이종진 전)코렌 대표이사

이종진 전 코렌 대표이사는 전남대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졸업 후 진도여중 물리교사로 교편을 잡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는 학교 생활에 지루함을 느껴 교편을 내려놓고 현대전자산업에 입사해 렌즈 분야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을 쌓았다. 현대전자산업 멀티미디어광학팀 팀장을 거쳐 세키노스코리아 광기술연구소 연구실 실장 등을 지낸 뒤 1999년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 ‘코리아 렌즈(Korea Lens)’를 줄인 코렌이라는 사명의 회사를 창업했다. 4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코렌은 광학렌즈 제조로 국내 휴대폰 카메라 렌즈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2004년

### 김선광 현)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광 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영훈고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롯데쇼핑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대전점장-러시아사업부 담당 임원-상품본부 해외명품부 담당 임원을 거쳐 마리오아울렛 유통사업본부 사장 등을 지낸 유통전문가다. 2019년 롯데뮤지엄과 롯데콘서트홀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산하 재단인 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해 엄선된 공연기획을 위해 몇 년 앞서 미리 준비하는 방침을 고수하며 좋은 공연을 선보여 왔으며 관객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최상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공연을

### 이종진 전)코렌 대표이사

LG이노텍에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고 삼성그룹 주요 부품사도 고객사로 확보하며 승승장구했다. 코렌은 2021년 6월 주인이 바뀌면서 사명이 지나인 제약으로 변경됐고, 코로나19 진단키트 회사로 탈바꿈해 코로나19 5조 진단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 김선광 현)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광 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 영훈고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롯데쇼핑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대전점장-러시아사업부 담당 임원-상품본부 해외명품부 담당 임원을 거쳐 마리오아울렛 유통사업본부 사장 등을 지낸 유통전문가다. 2019년 롯데뮤지엄과 롯데콘서트홀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산하 재단인 롯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해 엄선된 공연기획을 위해 몇 년 앞서 미리 준비하는 방침을 고수하며 좋은 공연을 선보여 왔으며 관객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게 최상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반에 걸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 공연을

### 통해 얻은 감동이 일상으로 스며들어 풍요로운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롯데콘서트홀의 방향과 가치를 추구해 가고 있다. 롯데콘서트홀과 롯데뮤지엄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꾸준히 선보이며 대한민국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인왕시장·유진맨션 ‘홍제지구’ 역세권 활성화 대상지로… 감성도시 조성 활력

####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는 인왕시장과 유진맨션을 포함한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만2572㎡ 면적의 ‘홍제지구중심’이 최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유진맨션은 1970년 홍제전 위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로 1990년대 내부순환로가 건설되면서 주거동 일부(B동 45층)가 철거됐다.

홍제지구중심은 2010년 ‘홍제1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구역이 해제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개발 방식이 시도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구는 올해 들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정보 창구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했다. 또한 주민과의 개별 및 단체 면담과 설명회를 40여 차례 이상 열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갔다.



서대문구 홍제지구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가 홍제마을활력소에서 21일 열렸다.

아울러 사업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구는 올해 6월 ‘제3차 주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주민이 직접 선택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식으로 홍제지구중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높은 동의를 얻어 서

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선정위원회는 지역의 개발 필요성과 주민의 높은 사업 의지(동의율 74.1%) 등을 평가해 대상지로 결정했다.

홍제지구중심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홍제전 복원을 통해 시민 여가공간 제공과 수변 감성도시 및 서북권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달 21일 홍제동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에서 열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서 이성현 구청장은 “관 주도 가 아닌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는 2024년 ‘홍제지구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홍제지구중심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발안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daily.com

### ‘지능형 건설기반 구축’ 업무협약

#### 울산광역시

울산시는 23일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능형(스마트) 건설 기반(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 상호협력으로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도입하고 사업화에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기술과 인력 활용 스마트 인프라 분야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협력사업 추진으로 건설기술 고도화 실현 △지역 건설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공동 협력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 유일한 건설기술 분야 국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지역협력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는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지능형 건설기반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지능형 건설기술 현장 적용-실증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중소중견 건설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두겸 시장은 “울산 지역 건설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 기반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daily.com